

전시공간 분산...여유롭게 감상하세요

개막 이틀간 비엔날레 현장 둘러보니

비엔날레전시관 난민·전쟁 등 영상 다수
문화전당, 짜임새 있는 구성 친근감
국군병원, 사전 투어 시간대 확인 필수
확 바뀐 시민회관선 '파빌리온 프로젝트'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첫 주말을 맞은 8-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이 방문, 다채로운 현대 미술의 향연을 즐겼다. 전시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외국인 관람객의 발길도 이어졌다. 아무래도 '난해한' 현대미술의 특성상,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도슨트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한번 꼼꼼히 작품을 감상하는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올해 처음 시도된 11명의 다수 큐레이터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기존처럼 단일 예술감독이 전시를 총괄할 경우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며 '몰입도' 있는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데 반해 다수 큐레이터제는 '개성있는' 기획의도에서 파생되는 작품들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만 '주제와의 연결성' 등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는 일부 전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이 메인 역할을 맡고 나머지 공간들이 '서브 전시장'이었던 데 반해 아시아문화전당에 3개 색션을 배치, '두개의 메인 전시관'이 운영되면서 전시의 짜임새와 집중도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각 큐레이터의 세부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큰 주제의 틀 안에서 감상한다면 자신만의 흥미로운 작품을 '발견'할 수 있는 즐거움은 있다. 다만 작품 수가 43개국 165명 300여점으로 방대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다 전시 공간이 분산된 점을 감안, 넉넉한 감상 시간을 갖는 게 필수다. 그밖에 해마다 지적돼 온 불편한 작품 설명은 올해도 별반 나아지지 않아 아쉽다.

◇골라보는 재미, 7개의 주제전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 주제 아래 11명의 큐레이터가 선보인 7개의 주제전은 지구촌의 이주와 난민, 식민, 냉전, 인터넷 격차, 젠더와 인종 등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 들어 더 '견고해지' 다양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먼저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는 '영상 작품'들이 많아 차분히 둘러보면 훨씬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1전시실 '상상된 국가들/모던 유토피아' 전에서는 브라질 대통령 궁을 시멘트 봉지로 제작한 모형과 이 모형을 바다에 띄워 촬영한 '걸어서 브라질리아', 김수근이 설계한 서울 세운 상가의 모습을 통해 식민주의, 전쟁, 독재의 영향을 살핀 서현석의 '잃어버린 항해' 등이 눈길을 끈다.

그리타 가위형 기획의 '정제라는 환영을 마주하며'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색션으로 '난민'과 '이주' '국경' 등의 문제를 조망한다. 호 추 니엔의 '이름 없는 존재 & 이름'은 40여분 달하는 긴 영상 작품이지만 흥미로운 스토리와 편집으로 몰입도를 높인다. 할릴 알탄데레가 시리아 난민 위기를 다룬 '우주 난민'과 '뢰프테 항공사' 포



9일 '2018 광주비엔날레'가 열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관람객이 손뚱만한 크기의 수만장의 사진을 붙여 감시의 문제를 제기한 하산 엘라히의 '수많은 작은 형제들'을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스터는 유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글하다. 또 '산들바람이 우리 위로 지나갔다'는 4분 분량의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풀어내 감동을 준다. 관객들이 오랫동안 발길을 멈춘 작품 중 하나는 톰 니콜슨과 그레이스 삼보가 협업한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다' 등 두 작품으로 관객들은 헤드폰을 쓰고 12개의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난민들의 증언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이야기를 조각으로 만든 작품까지 함께 감상한다.

4전시실의 '종말들: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참여 정치'는 무거운 주제의 작품들을 경쾌하게 풀어내 눈길을 끌었다. 선우 훈의 '평면이 새로운 깊이'는 웹툰 형식을 기반한 작품으로 관객들이 마우스를 조작하며 집단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화전당 전시는 상대적으로 관객들이 좀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또 전시 공간 구성도 좀 더 짜임새가 있어 몰입도를 높이며 1995년 크 초의 '잃어버리기 위하여' 등 역대 비엔날레 참여작들도 만날 수 있다.

'정연심&이완근'이 기획한 '지진:충돌하는 경계' 전에서는 9-11 이후 심화된 감시와 시민권의 문제를 손뚱만한 크기의 사진 수만장으로 구성된 하산 엘라히의 작품 '수많은 작은 형제들', 수천개의 플라스틱 튜브를 활용한 설치구조물을 통해 낭비와 과잉의 문제를 드러낸 타라 노 노반의 작품, 스타 아티스트 나라 요시토모의 신작 등도 눈길을 끌었다. 김만석&김성우&백종욱이 기획한 '생존의 기술: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는 한국 작가 35명을 초대해 역동적인 전시를 만들어내 눈길을 끌었으며 '북한미술:사회주의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는 북한 미술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집체화를 비롯해 산수화 등 다채로운 조선회화를 선보여 인기가 높다.

◇옛 국군광주병원 'GB커미션'
역사성을 반영한 장소특정적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을 만나는 옛 광주국군병원은 전시 개막 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이곳에서는 마이크 벨스, 카데르 아티아, 아피차퐁 위라세 타룬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깨진 유리창과 담쟁이 덩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건물로 들어서는 것부터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기본이 된다. 창살이 쳐진 각각의 병실에 광주의 오래된 집에서 가져온 나무를 세워 둔 카데르 아티아의 작품 '영원한 지금'과 병원에서 떨어진 수십개의 거울로 제작한 마이크 벨스의 '거울의 울림(장소의 맹점, 다른 이를 위한 포식)'은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게 만든다. 아피차퐁의 '별자리'는 10일 첫 공개된다.

관람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안전 문제로 개별 관람은 제한돼 있어 사전에 투어 시간대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공간과 어우러진 볼거리 '파빌리온 프로젝트'
프랑스 팔레 드 도쿄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기획한 '이제 오늘이 있을 것이다'는 광주시민회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주황색 절골 구조물과 어우러진 이미지 작가의 작품이 인상적인데, 아쉽게도 일부는 비를 맞아 작동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존에 광주시민들이 알고 있던 시민회관 공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탐바콧한 곳에 전시된 최운-타라크 키스완슨 등 11명의 작가 작품들은 흥미롭다.

필리핀 현대미술 네트워크가 이강하미술관에 펼쳐놓은 'Hot house'는 넓지 않은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등산, 5·18 등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과 고(故) 이강하 작가의 소묘를 만날 수 있으며 참여작가는 이세현-렌즈라-인디파레데스 등 6명이다. 그밖에 헬싱키국제아티스트 프로그램은 무카사 로터스 갤러리에서 이매리, 이미레, 알리나 바이오나 등 핀란드와 한국작가들을 초청해 작품을 선보인다.

www.gwangjubienennale.org/gb/exhibition/viewinfo.do. 문의 062-608-43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6개국 여성작가 '기억과 역사'

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 13일까지 국제여성미술제
백년갤러리·지호갤러리...드영·목담미술관 연계전
협회, 2023년 세계여성미술축제 광주 유치 도전

16개국 여성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전시 '국제여성미술제'가 오는 13일까지 광주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 옆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백년갤러리와 지호갤러리 두 곳에서 열린다. 또 무등산 자락 드영미술관에서 '한국 몽골 교류전', 목담미술관에서 몽골 작가 개인전이 열리는 등 푸짐한 연계전시도 마련돼 있다.

사)국제여성미술교류협회(회장 정순이)가 광주에 총과 공동주최한 국제여성미술제는 2년에 한 번씩 광주와 해외를 오가며 여성의 독특한 상상력과 섬세함으로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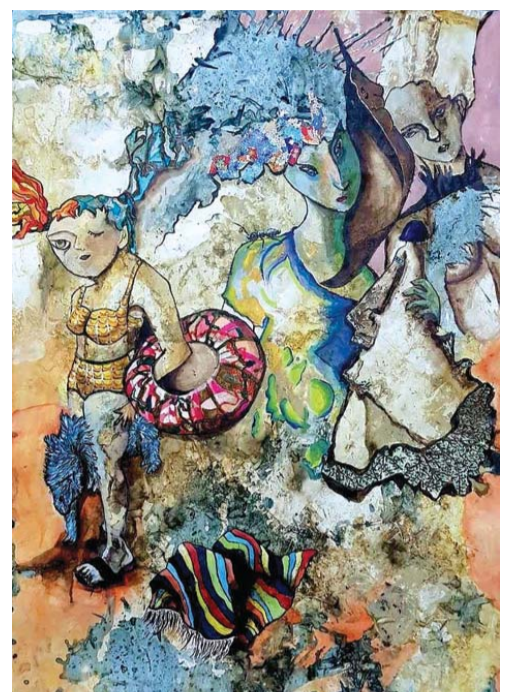
'기억과 역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미국·영국·몽골·중국·핀란드·일본·베트남 등 전세계에서 참여한 해외작가 42명과 국내 작가 48명이 다양한 담론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이자, 동시에 각 지역에서 여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획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 광주에서 첫발을 댄 국제여성미술제는 이듬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행사를 한 해의 거점을 만들어 일본 요코하마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2-3번째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성, 전시를 진행했다. 협회 측은 앞으로 2023년 세계여성미술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여성미술축제를 광주에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유럽과 아시아 여성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포럼도 열렸다.

이번 미술 축제와 함께 다양한 연계전시도 마련됐다. 드영미술관에서는 13일까지 한국·몽골 교류전이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시로, 사실적인 회화와 함께 모던 아트와 설치,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몽골 작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다. 몽골 작가들은 목가적 풍경과 유목생활의 풍속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몽골에서는 아노나랑 자르갈 사이항, 바신잘 초지자브 등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김익모·김진희·김창호·노정숙·류하원·문연남·신선윤·이윤영·임정은·조인자·주라영·주홍·한희원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그밖에 목담미술관에서는 몽골작가 나사의 초대전 '창조적 존재로의 대화'(9월30일까지)가 열린다. 또 북구 용봉동 한국미술박물관 초대전 '히라요코의 원고 자신의 미학'(30일까지)이, 갤러리 생강사에서는 '3개국 네트워크 조화의 빛'전(30일까지)이 개최된다. 문의 062-511-7269.



투린 웅가너 작 '10대 소녀 이야기'



나상행갤 비앙자르갈 작 '자연과 함께 3'

8/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